

부산광역시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등록문화유산 등록 사항을 같은 조례 제2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일
부산광역시장

1. 고 시 명 : 부산광역시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2. 고시사항 : 2건

연번	등록사항	문화유산명	수량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1	등록문화유산	성철스님 친필 원고 일괄 (性徹스님 親筆 原稿 一括)	88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67번길 19	대한불교조계종 해월정사 회주 진동엽
2	등록문화유산	동백아가씨 악보 일괄	160점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04	부산광역시 (부산근현대역사관)

3. 등록사유 : 붙임 참조

4. 등록일자 : 시보 고시일

5. 연 락 처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 소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전 화 : 051-888-5082 / 팩스 : 051-888-5069

- 홈페이지 : <https://www.busan.go.kr>, 전자메일syjs1016@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등록문화유산 등록 사유 1부. 끝.

□ 성철스님 친필 원고 일괄(性徹스님 親筆 原稿 一括)

- 명 칭 : 성철스님 친필 원고 일괄(性徹스님 親筆 原稿 一括)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월정사 회주 진동업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67번길 19, 해월정사
- 수 량 : 88장
- 제작연대 : 1947년~1988년
- 재질·형상 : 지류(원고지, 편지지, 갱지更紙 등)
- 규 격(cm) : 가로25.0×세로17.5 등
- 등록사유

『성철스님 친필 원고 일괄(性徹스님 親筆 原稿 一括)』은 성철스님이 1947년 문경 봉암사의 결사부터 팔공산 성전암, 삼각산 도선사, 운달산 김용사, 그리고 1960년대 후반 해인사에서 주석할 때 직접 쓴 원고 등으로 편지지, 원고지, 갱지, 일력(日曆) 뒷면, 등사(謄寫) 용지, 노트 등에 작성되었다.

친필 원고 중 「공주규약」, 「정해하통」, 「1947년 가을」, 「봉암사의 꿈」 등을 통해 1947년부터 1950년 3월경까지 지속된 봉암사 결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봉암사 결사는 현재 조계종단의 수행 종풍과 청정 승가 구현의 출발점이 되었고, 한국 근현대 불교의 수행정신을 부흥시킨 것으로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실달학원 시행 요강」, 「용맹정진」, 그리고 「일체법불가설(一切法不可說)」, 「신신명」, 「달마정전」 등 내용은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을 최고 기준으로 삼아 승려의 규율을 철저히 실천하고 계율을 준수하며, 올바른 불전 의식과 수행(참선, 경전 학습)을 정립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친필 원고는 한국 현대불교를 고찰하는데 귀중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 동백아가씨 악보 일괄

- 명 칭 : 동백아가씨 악보 일괄
- 소 유 자 : 부산광역시(부산근현대역사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04
- 수 량 : 160점
- 제작연대 : 1964년~1989년
- 재질·형상 : 지류(오선지 등)
- 규 격(cm) : 가로27.1×세로19.1 등
- 등록사유

1964년 발표된 동백아가씨는 부산 출신의 작곡가 백영호, 작사가 한산도, 가수 이미자가 부른 대중가요로, 『동백아가씨 악보 일괄』은 노래의 초기 악보인 1964년 5월 표시 악보로부터 1989년 3월 30일 원희명 편곡 악보까지 157점과 가사지 3점 총 160점이다.

『동백아가씨 악보 일괄』은 단일곡으로서 악보의 다양성과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음악 기록물이다. 최초의 한산도 작사, 백영호 작곡, 이미자 노래에서 시작해 경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편곡(A, G, F단조 등) 및 편곡자인 이철혁, 김용렬(김용년의 오기), 왕준규(왕준기의 오기), 황중원, 최종혁, 원희명의 편곡이 포함된 악보로 확대되어 있으며. 실연자로서 이미자 이외에도 펄 시스터, 현인, 남진, 진철 등이 녹음하거나 실연자로 기록된 편곡 악보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다. 작사 또한 최종본으로 변천하는 과정의 창작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예술적 산물로서 큰 가치가 있다. 1960년대 대중음악사 연구뿐 아니라 음악 제작 과정의 세밀함과 당대 사회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